지역 메아리

정읍시, '다 함께 건강걷기' 운동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정읍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다 함께 건강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운동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걷기운동 전문가 양성 교육은 건강걷기 전문지식을 갖춘 걷기지도자를 양성, 걷기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걷기동아리의 리더와 걷기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총 4회 운영된다.

교육에서는 시민의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걷기운동 지도와 함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련해 걷기동아리는 올해 4월부터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총 63개 팀 1천107명으로 구성돼 있다. 팀별 리더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걷기운동 실천을 유도·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이후 걷기 실천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비만율은 5년 연속 증가추세"라며 "범시민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경관계획·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열어

산, 들, 강, 바다, 갯벌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고창군이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도시 경관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1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경관위원, 용역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용역기간 18개월)'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고창군 전체(607.86㎢)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 관리·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이다.

특히 한옥, 전통담장,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경관적 기념물, 염전, 농경지 등 우수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고창군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과업개요, 경관미래상 구상, 향후일정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과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고창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이 숨 쉬는 고창군으로 만들어 고창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형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호남제일정으로 알려진 태인면 피향정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다.

은은한 연꽃향기에 '흠뻑'

정읍시 태인면 호남제일정 '피향정' 연꽃 만발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알려진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다.

이달 초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연못을 온통 붉게 물들여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향정 연꽃은 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온 사진작가는 "아름다운 한옥 정자와 아담한 크기의 연못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속에 핀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라며 일대 풍광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랐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속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생명의 빛을 상징하며 군자의 꽃으로 일컬어 왔다.

특히, 송나라 철학자 주돈이가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속이 비어도 곧으며 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기에 군자를 상징한다"라고 한 이후 연꽃은 '군자의 꽃'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더구나 태인지역은 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태수로 부임해 학문을 장려하고 선정을 베푼 이래 불우헌 정극인과 일재 이항을 거치며 호남선비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하여 왔음을 볼 때 피향정 연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호남 제일의 정자로 널리 알려진 피향정은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나 상연지는 1900년대 초 메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곳 연못가를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고 전해지는 피향정은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건물은 조선 숙종 때인 1716년 태인현감 유근이 다시 고쳐 지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칠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에 들러 선비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피향정에서는 피향정문화축제제전위원회(대표 박민우) 주관으로 문화축제가 열렸다.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만발한 연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악취모니터링 방제단 출범

부안군은 22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악취로 인해 군민들이 더 이상 생활환경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을 출범해, 주·야간의 구분 없이24시간 악취방제체제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은 4명(2인1조)으로 구성되며, 부안읍 악취실태조사 악취지도를 기반으로 부안읍 일원 악취발생 주요지역(국도 30호선, 부안읍 시내, 썬키스로드 구간, 농공단지 등)의 일일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발생시 차량을 이용해 악취제거제 살포 등의 방제조치로 악취확산을 원천차단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영농철에 발생하는 미부숙된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에 대해서도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3월 25일 이후 가축분뇨법의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미부숙된 퇴비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관계자는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을 적극 활용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악취검사 정례화를 통해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 양파, 음식박람회 대표선수로 출전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양파'가 전국 양파를 대표해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음식박람회의 메인 식재료로 선정됐다.

한식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함께하면서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 브랜드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창군과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23일 한식문화관(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식탁의 주인공, 양파 음식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양파가 식탁에서 훌륭한 만능 식재료임을 홍보하기 위해 농부, 요리사, 소비자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건강하게 양파를 소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날 국내·외 참가자만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단단한 육질과 단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양파'가 메인 식재료로 선정됐다. 고창지역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김형준씨와 지역양파 농가들이 직접 서울지역 소비자들과 만난다. 이날 박람회에서 판매 될 고창양파만 1.1톤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재료 조달을 담당한 농협경제지주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농협 직거래 장터에서 고창양파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강력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스타셰프의 시연 및 토크에서는 '레스토랑 오세득'의 오세득 오너셰프에게 양파를 활용한 간단 요리법을 배운다. 양파요리를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클래스도 준비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서, 의무위반 등 비위 척결 위한 토론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에서는 지난 19일 경찰서장 주재로 의무위반 등 비위척결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관의 직무상 과오 및 의무위반으로 인해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동료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경찰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서장은 수사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찰개혁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모든 관심이 경찰에 쏠려있어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다면 자신과 조직에 누를 끼침은 물론이고 국민께도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장이든 순경이든 경찰관은 한명 한명이 하나의 관청역할을 하므로 조직원 중 0.01%만 잘못해도 99.9%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쏟아지는 비난을 조직이 감수해야 함을 명심하고 매사에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문감사관은 최근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의무위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반면교사 삼아 경각심을 갖고 단 한건의 일탈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열한 자기관리와 법령과 절차 엄수를 습관화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정환 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의무위반 행위라도 경찰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앞에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는 물론 동료까지 챙겨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이수정 교수 초청 '단풍아카데미' 열어

정읍시가 오는 24일 오후 7시 정읍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초청해 '제80회 정읍 단풍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누가 범죄를 막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 교수는 '범죄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반대 질문을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발생원인과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설명한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프로파일러와 범죄 심리학자로서의 경험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수정 교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심리측정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읍 단풍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은 11월까지 매월 무료로 실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